



분꽃나무



박형순 원장
(주)청림나무병원
농학박사

4월과 5월은 산과 들은 일년중에서도 가장 다양하고 아름다운 색채감을 즐길 수 있는 시기다. 나무와 풀들이 돌아내는 새싹은 각양각색의 초록빛 세상을 연출하고 봄꽃들은 저마다 깨끗하고 순수한 색상으로 우리의 눈과 마음속에 봄의 향연 속으로 빠져들게 한다. 흰색, 노란색, 분홍색, 붉은색 등 어느

하나하나 아름답지 않은 꽃이 없겠지만 그 중에서도 산에서 녹색으로 잎이 힘차게 올라 올 때 자연의 힘을 다시 한 번 공감하게 만든다. 그리고 꽃과 잎 색상이 심리적으로 신비하고 고결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것을 볼 때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고 친근감을 주기도 한다. 특히 산기슭에서 홀로 꽃을 피우는 분

꽃나무도 어린시절 우리의 추억과 함께 했던 "분꽃"을 연상케 하며 그리 낯설지 않은 이름을 가진 자생식물이기도 하다. 우리주위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꽃나무는 아니지만 연분홍빛으로 수북이 피는 꽃이 무척 아름답고 꽃향기가 은은하게 여자의 분내가 나는 꽃으로 마치 꽃다발을 이루어 피는 듯한 이 꽃은 참으로 독특한 매력을 안겨주는 꽃이기도 하다.



꽃 봉오리



꽃 받침



꽃 다발



흰색으로 변한 꽃

1. 분포

낙엽활엽관목으로 우리나라 원산이며 일본, 중국에도 분포하고 키 2m정도 자라는 나무로 전국 각지의 산지나 바닷가 산기슭에서 광범위하게 자라는 낙엽활엽관목으로 내한성과 내염성이 강해 도시나 해안가에서도 잘 자란다. 벌이 좋고 보습성과 배수성이 좋으며 비옥한 곳에서 잘 자라며 도시에서도 생육이 양호하다.

2. 특성

키는 2m 정도에서 자라는 나무다. 밑에서 여러 줄기가 올라오며 소지와 겨울눈에 밀모가 있다. 잎은 마주나고 길이 3~10cm로 넓은 난형 또는 원형이고 둔두 또는 예두이며 원저 또는 심장저이고 불규칙한 톱니가 있으며 표면과 뒷면에 성모가 밀생하며 엽병은 길이 5~10mm이다. 꽃은 4~5월에 잎과 동시에 피며 취산화서로 달리는데 꽃봉오리에 대개 분홍색으로 나타나다 흰색으로 변한다. 지난해 가지의 끝이나 1쌍의 잎이 있는 짧은 가지 끝에 갈매기 모양의 흰색, 및 분홍색으로 달리고 지름 1~1.4cm이고 연한 자줏빛을 띤 홍색을 띠며 향기가 있고 꽃받침은 5개로 갈라지고, 화관(꽃부리)은 길이 1cm 정도이며 수술은 5개이고 수술대는 꽃 받의 길이보다 짧다. 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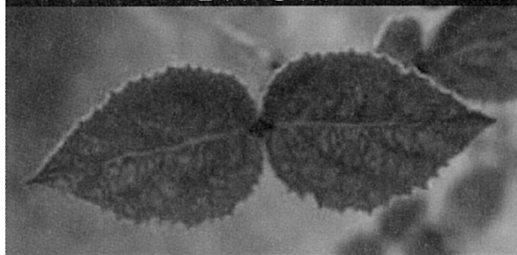
매는 핵과로 난상 원형이며 길이 1cm정도이고 9월에 분홍색에서 검은색으로 익으면 먹기도 한다. 잎 뒷면에 털이 뽀뽀하게 나서 만지면 부드럽고 두꺼운 느낌이 드는 점이 가막살나무와 차이점이다. 분꽃나무 이름은 꽃의 모양이 "분꽃(Mirabilis jalapa L.)"을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이다.



분홍색꽃 근접



갈때기 모양의 꽃



앞 앞면



앞 뒷면

3. 번식방법

종자 및 삽목, 분주로 번식한다. 가을에 채취한 종자를 2년간 노천매장 하였다가 이른 봄에 파종하거나 좋은 품종을 증식하기 위하여는 봄에 삽목을 하여 증식 시킨다. 또 초여름에 미숙지를 채취하여 녹지 삽목을 한다.

4. 조경적 이용

분꽃나무는 분화목(粉花木)이라고도 하며 꽃은 향기가 멀리까지 퍼지며 관상미도 좋아 해외에서 여러 원예종이 개발되어있어 우리나라에서도 확산 보급 및 원예종개발이 시급하다. 유럽에서는 우리나라 분꽃나무를 기본종으로 원예품종을 육성하여 전 세계 시장에 유통시키고 있다. "Aurora", "Charis" 등의 품종은 분꽃나무에서 우수한 형질의 개체를 선발한 것이고 "Burkwoodii" 품종은 서양종인 *V. utile*와 우리나라의 *V. carlesii*을 교잡한 것이다.

분꽃나무는 관상가치가 높은 나무이다. 봄에는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, 여름에는 붉은색에서 검은색으로 변하는 열매를, 그리고 가을에는 붉은 포도주 빛깔을 내는 단풍을 감상할 수 있다. 개화기간은 약 10일 정도이며 꽃향기는 약 8~10m밖에서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. 열매는 새들이 무척 좋아하여 새들을 유인하는데 도움이 된다. 추위와 건조에 강하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적응하기 때문에 도심지의 공원이나 정원으로 적합하다. 주로 3~5그루를 모아심거나 가로수변의 생활타리용으로 활용할 수 있어 관상용으로도 개발가치가 높은 나무이기도 하다.

5. 유사종*

산분꽃나무(*Viburnum burejaeticum* Regel et

Herder) : 키 5m까지 자라며 산지에서 자생하고 화
 관이 길고 가늘며 열매에 광채가 난다.* 섬분꽃나무
 (*Viburnum carlesii* var. *bitchuense* Nakai) : 키 2m
 정도 자라며 해안가 모래사장에서 자생하고 잎이 약간
 좁고 길며 꽃이 분꽃나무에 비해 작은 편이다. ㄱ

